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 배우의 영향에 대한 고찰 - 「지킬 앤 하이드(Jekyll & Hyde)」를 중심으로

홍 정 민
(이화여대)

1. 서론

한국 뮤지컬 산업의 공연 매출액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연 평균 19% 이상 급증했으며 여기에 라이선스 뮤지컬의 성장이 주효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박현주, 임대근 2016: 255-58; 박병성 2015: 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3, 11; 오현주, 김영찬 2014: 126).¹⁾ 그런데 이처럼 한국 뮤지컬 산업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특징이 있다. 성공한 뮤지컬 대부분이 원작을 적극적

1) 2010년대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의 비중은 작품 수 측면에서는 30%대에 불과하지만 시장 규모로는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뮤지컬 관람객이 가장 선호하는 뮤지컬 유형으로 꼽히는 등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박병성 2015: i, 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73).

으로 변형해 한국의 맥락에 맞게 현지화한 작품이라는 점이다(박현주, 임대근 2016: 261-63; 최승연 2013: 148-50).²⁾ 라이선스 뮤지컬이 해외의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러한 적극적인 현지화 과정에서는 번역을 통한 대본과 가사의 변형과 수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한국 뮤지컬 산업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번역학은 물론 공연예술학에서도 뮤지컬 번역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³⁾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공연된 라이선스 뮤지컬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현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Jekyll & Hyde)」를 대상으로 가사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에서는 상업적으로나 작품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1000회 돌파, 역대 최고 흥행 수익 달성 등의 대기록을 세운 대표적 흥행작으로, 작품의 가사 번역 양상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의 성공적 현지화를 위한 번역 전략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출연 배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공적 현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번역 현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분석 틀로는 베이커(Baker 2006)가 제시한 번역 과정에서의 프레이밍 전략에 기반해 미국에서 제작된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가 한국 문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특히 출연 배우의 다양한 영향력과의 관련성 속에서

2) 라이선스 뮤지컬은 공연 방식에 따라 해외 원작을 100%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레플리카(Replica)와 음악, 대본 등의 뼈대는 유지하되 나머지 부분에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논 레플리카(non-Replica)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중앙일보, 2011. 8. 30). 후자의 경우 원작과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수용되면서 그로 인한 미학적 성취를 이루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브로드웨이의 다양한 버전을 종합해 한국화하는 데 성공한 「지킬 앤 하이드」, 기본 노래와 간단한 스토리만 남기고 완전히 현지화해 창작뮤지컬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공연된 유럽 뮤지컬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 「삼총사(The Three Musketeers)」 등이 있다(박병성 2015: 5).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뮤지컬’과 ‘번역’을 키워드로 상세검색한 결과, 뮤지컬 공연에서의 번역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광성희(2008), 피터 리(2011), 이선정(2012), 이성은(2013), 정정희(2007), 최승연(2009), 홍승연(2017), 홍정민(2016) 등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측면이 부각되고 약화되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뮤지컬 번역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이들 각 주체의 영향력은 국가나 문화권 특유의 뮤지컬 산업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프레이밍 양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 문화라는 광범위한 맥락보다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요인으로 초점을 좁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고찰 자체가 부족한 가운데 소수의 관련 연구(곽성희 2008; 이성은 2013; 피터 리 2011 등 참고)는 번역된 가사의 음운적 측면이나 전달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미적 측면을 다뤘더라도(홍정민 2016b) 출연 배우가 가사 번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구체적인 측면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는 번역 양상을 통해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한 번역 전략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함으로써 번역학과 공연예술학 내 관련 연구의 양적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한국 뮤지컬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단서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현지화된 해외 라이선스 작품은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조성의 결여와 모방을 통한 재연에 불과하다는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한 한국 뮤지컬 산업 내 비판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현주, 임대근 2016: 253-63). 본 연구가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한국 공연은 브로드웨이 공연으로부터 어떻게 현지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가사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우의 영향은 프레이밍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배우의 영향력

뮤지컬은 철저하게 관객의 티켓에서 오는 수익에 의존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공연 예술 가운데 이들의 취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장르로 꼽힌

다(차윤미 2014: 74). 여기서 현재 한국 뮤지컬 산업의 맥락에서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관객들이 배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차윤미(2014: 76-77)는 한국 뮤지컬의 팬덤이 형성되는 구심력을 뮤지컬이라는 장르, 배우, 콘텐츠 등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최근에는 다른 요소보다 배우를 구심력으로 한 팬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트랜스젠더, 동성애, 살인 등의 민감하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헤드윅(Hedwig)」, 「쓰릴미(Thrill Me)」 등의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는 것은 이들 작품이 외모가 뛰어난 남자 배우들이 캐스팅함으로써 소재가 지닌 거부감을 없앤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이인선 2008: 27; 차윤미 2014: 82). 이는 현재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배우가 콘텐츠나 장르 자체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배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현재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는 철저히 배우를 중심으로 뮤지컬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스타 캐스팅’, 즉 인지도가 높은 배우나 가수를 캐스팅하는 것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김나민, 홍나영, 이문규 2010; 백새미 2014; 윤자형, 2009; 전병준, 윤민정 2010; 차윤미 2014; 최수용 2010). 실제로 2000~2012년 뮤지컬 흥행작에서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였다(박병성 2015: 89). 이러한 스타캐스팅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로, 이 작품은 여러 한계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04년 초연에서 주연을 맡았던 조승우가 기록적인 흥행을 견인하면서 작품의 최대 흥행 요인이 작품성에서 배우의 티켓 파워로 이동하는 등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배우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계기를 제공했다(차윤미 2014: 69; 윤자형 2009: 61-62).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배우가 뮤지컬 작품의 상업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최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김나민, 홍나영, 이문규 2010; 노승국, 김상용 2015; 백새미 2014; 차윤미 2014; 최수용 2010). 김나민, 홍나영, 이문규(2010)는 관람객 심층 면접 및 정량조사를 통해 출연 배우의 전문성과 인지도가 관람객의 관람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백새미(2014)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출연 배우가 흥행의 주요 지표인 뮤지컬에 대한 인지도와 티켓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승국과 김상용(2015)은 더블 캐스팅된 각 배우의 인지도에 따른 관람객 구매

의향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배우가 작품의 흥행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하고자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관객들은 유명 배우에 대해 약 19.2%의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8).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뮤지컬 관람객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가 작품 선택 시 ‘출연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은 ‘줄거리’ 64.3%, ‘음악’ 49.7%, ‘제작진’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15: 75). 또, 한 달 문화비 지출 30만원 이상, 뮤지컬 관람빈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출연진’을 선택한 비중이 높았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75).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배우가 지닌 영향력이 이처럼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품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관객들이 선호하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은 물론 인물의 캐릭터나 이미지가 구현되는 대사나 가사 역시 이들 배우의 이미지나 역량 가운데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배우가 인물의 캐릭터나 이미지 구축, 대사나 가사 제작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출연 배우의 견해 및 캐릭터 해석, 외적 특성 및 이미지 등이 라이선스 작품의 캐릭터 설정과 대사 및 가사 번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킹키 부츠(Kinky Boots)」에서 주인공 톨라가 과한 작업 의상을 지적 받은 뒤 하는 “Don’t be so hard on yourself”라는 대사는 2014-2015년 한국 공연에서 “내 복장이 네 복장 터지게 하니”로 바뀌었는데 이는 출연 배우 오만석의 아이디어이다(서울경제, 2015. 1. 22). 지난 2016년 재공연된 「스위니 토드(Sweeney Todd)」의 경우 여자 주인공 러빗 부인 역할을 맡은 옥주현과 전미도는 남자 주인공 스위니 토드의 과거를 소개하는 넘버 <푸어 땡(Poor Thing)>의 “a proper artist with a knife”라는 가사를 각각 “칼날을 닳은 예술가”와 “칼을 든 진짜 예술가”로 부르는데 이는 연습 도중 옥주현이 스위니 토드의 뛰어난 실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내놓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헤럴드경제, 2016. 7. 27). 또, 이 작품의 번역을 담당한 김수빈 번역가는 “다양한 해석이 있기에 작품의 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우의 성량, 음색, 개성, 말투 등을 고려해 충분히 재가공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밝혀 번역 과정에 배우의 인물 해석뿐 아니라 외적 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헤럴드경제, 2016. 7. 27).

그렇다면 한국의 뮤지컬 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우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닐까? 관객층이 주로 중년층에서 형성되어 있는 브로드웨이 등 서구와는 달리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는 젊은층, 특히 경제력을 갖춘 20-30대의 미혼 직장인 여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오현주, 김영찬 2014: 134; 지혜원 2012: 124; 차운미 2014: 69-70; 최승연 2009: 251, 2013: 148; New York Times, 2013. 12. 8). 티켓 가격이 영화 티켓의 5배가 넘는 만큼 다른 관객층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 20-30대 여성 관객들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차운미 2014: 69-70). 실제로 노승국과 김상용(2015: 208)에 따르면 여성 관객들은 남성 관객보다 인지도 높은 배우가 캐스팅된 공연에 티켓 값의 27.2%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30대 미혼 여성 관객층의 힘으로 뮤지컬 산업에서는 특히 젊은 남성 배우에 대한 선호, 나아가 팬덤이 강하게 확산되어 왔으며 이는 이들 젊은 남성 배우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오현주, 김영찬 2014: 134; 차운미 2014: 69-70; 최승연 2013: 148; New York Times, 2013. 12. 7, 2013. 12. 26).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젊은 남자 배우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요소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사 번역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사 번역 과정에서 배우의 영향으로 원문의 어떠한 부분이 부각되고 약화되었는지를 프레임의 관점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2.2 번역 과정에서의 프레임 전략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라이선스 뮤지컬은 대부분 적극적 변형을 통한 현지화 과정을 거친 작품들이다. 즉, 원작의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한국의 맥락에 맞는 부분은 과감히 부각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화되거나 삭제된 것인데 이처럼 하나의 문화권에서 생산된 작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작품의 초점이나 관점이 목표 문화권의 맥락에 맞게 수정되는 과정은 프레임(frame)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프레임은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이 발전시킨 개념으로, 그는 이 개념을 (사회적) 사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 여를 지배하는 조직의 원칙이라고 설

명한다(10-11). 필모어(Fillmore 1982)는 프레임을 문화적 관례, 세상에 대한 믿음, 공유된 경험, 일을 하는 표준적인 또는 익숙한 방식, 사물을 보는 방식 등에 대한 특정한 구조화된 이해로 규정했고 레이코프(Lakoff 2004: x v)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구성하는 정신적 구조물로 목표, 계획, 행동의 방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자의 정의와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프레임은 어떠한 현상이나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으로 문화, 신념, 경험, 관습, 관행, 가치 체계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홍정민 2016a: 207). 이는 프레임이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간 중개가 필수적인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상의 어떤 측면에 프레임을 맞추느냐, 즉 프레이밍은 그 문화권 내 구성원들의 사고 체계, 사유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문화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두 집단에 존재하는 프레이밍 방식의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강경이 2011: 736).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 이뤄지는 현지화 역시 해외의 작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두 문화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프레이밍 방식의 차이를 메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프레임은 이처럼 특정한 현상이나 개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틀로서 수동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여러 사회 운동 관련 연구가 프레임을 ‘기대’의 구조, 즉 어떠한 행동이나 특정한 위치를 특정한 관점으로 제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프레이밍은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Baker 2006: 106). 또, 프레이밍 과정은 나아가 개인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목표와 연결되고 행위의 잠재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매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Cunningham & Browning 2004, Baker 2006: 106에서 재인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레이밍은 기본적으로 선택(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이 개입되는 과정으로서 인지된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하고 의사소통 텍스트에서 이를 좀 더 현저하게 드러냄으로써 전달되는 사건에 대한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판단, 해결 방안 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Entman 1993: 52).

번역 과정에서도 다양한 요인과 목적에 따라 프레이밍이 적극적, 전략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베이커(2006: 105-32)는 사회 운동의 관점에 기반해 프레이밍을 행위 능력(agency)이 개입되며 의식적으로 현실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정의하고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레이밍 현상을 설명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의 경우, 접근법이나 초점이 연출자, 번역자, 출연자 등 참여 주체, 작품의 제작 방향, 뮤지컬 산업의 환경,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홍정민 2016b: 223-233) 이는 해당 과정에서 프레이밍이 이들 요인에 따라 적극적,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뮤지컬의 가사 번역 과정에서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의 캐릭터 해석 및 외적 특성에 따라 프레이밍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베이커(2006: 111-39)는 프레이밍 과정에 시제 전환, 완곡 표현 사용, 억양, 조판, 색깔, 이미지 등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장치가 활용된다면서 번역사와 통역사가 내러티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ST 속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프레이밍 전략을 시공간적 프레이밍(temporal and spatial framing),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딱지 붙이기(labeling), 참여자 재배치(repositioning of participants)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해 소개했다.

우선, 시공간적 프레이밍은 특정 텍스트를 선택한 뒤 전달하고자 하는 내러티브가 강조되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해당 텍스트를 원래의 시공간적 프레임워크와 상관없이 자신과 좀 더 관련이 있는 현재의 내러티브와 연결시키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반드시 텍스트 자체에 대한 개입을 요하지는 않는다(112).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003년 3월 3일 전 세계 59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된 아리스토파네스의 반전 희극 「리시스트라타(Lysistrata)」에 대한 낭독회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번역이 이에 해당한다(112).⁴⁾ 특히 이스라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4) 「리시스트라타」는 서기전 410년 작품으로 펠로폰네소스전쟁으로 피해를 본 아테네 여성들이 성 파업을 일으켜 남편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전 사상과 여권을 강조하는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여러 반전 운동에 이용되었으며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1960년대 미국에서는 교내 연극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박문각 시사상식사전).

탄압을 피하기 위해 행사가 비밀리에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는 특정 텍스트를 원문과는 다른 시공간적 맥락에서 번역하기로 하는 선택 자체가 해당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해석적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12).

선택적 전유는 일련의 삭제 또는 첨가를 통해 ST의 내러티브 또는 ST의 내러티브가 위치한 거시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정교화하는 것을 지칭한다(71, 114). 특정 집단의 내러티브를 극단주의적이거나 위협한 것으로 제시하기 위해 특정 텍스트를 선택 또는 검열하거나 자기 검열에 따라 특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텍스트 자체에 대한 개입은 물론 특정 텍스트, 작가, 언어, 문화 등에 대한 포함이나 배제와 같이 좀 더 높은 층위에서의 개입도 포함된다(114). 예를 들어, 스탠디시 오그래디(Standishi O'Grady)는 19-20세기 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맥락에서 아일랜드 신화의 영웅 쿠 훌린(Cu Culainn)의 이야기를 번역할 때 쿠 훌린이 전투에서 흉측한 괴물로 변신하는 부분을 각주에 축약하거나 약화시켜 언급했다(Tymoczko 1999: 22). 여기에는 아일랜드인의 폭력성과 호전성에 대한 영국인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이러한 묘사들을 그대로 번역할 경우 그러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아일랜드의 독립에 반대하는 영국의 식민주의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Baker 2006: 116; Tymoczko 1999: 22-23). 또, 2000년 3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가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의 지지자이자 미국 외교 정책의 비판자였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z)의 칼럼을 번역하면서 경찰 등 미국 정부 당국에 대한 부정적 묘사 또는 미국의 공식 내러티브에 반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나 대부분의 타블로이드 매체가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사회적 내러티브의 선정적 측면을 과장하는 경향 역시 선택적 전유에 해당한다(Munday 2002; Baker 2006: 119에서 재인용).

딱지 붙이기는 사람, 장소, 집단, 사건을 비롯한 내러티브의 핵심 요소의 성격이나 특징을 규정하는 단어, 용어, 구문을 사용하는 모든 담화 과정으로, 전달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해석적 프레임을 제공한다(122). 유전자 조작과 대량 해고를 각각 ‘식품 생명공학(food biotechnology)’, ‘합리화(rationalization)’로 표현하거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로 동원해 성적으로 착취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comfort women)’

로 지칭하는 등의 완곡 어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122-23). 이러한 딱지 붙이기를 통한 프레이밍 전략에서는 명칭과 제목이 특히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번역사는 서로 대립되는 집단이 동일한 대상을 다른 명칭으로 부를 경우 각 명칭이 지니는 함의를 인지하고 텍스트의 거시 내러티브를 고려해 선택을 내리거나(123-28) 소설, 영화, 학술 서적 등의 텍스트나 시각 자료의 제목을 통해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을 전경화할 수 있으며 이 때 텍스트의 내용 역시 새로운 제목이 전달하는 내러티브에 맞게 수정될 수 있다(129-30).

참여자 재배치의 경우 의사소통 참여자가 위치하거나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지시어, 어역, 시공간, 방언, 별칭 등 다양한 규정 수단을 언어적으로 조정해 사건, 등장인물, 독자, 청자 등 ST 내러티브 내 또는 주변의 참여자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32, 135). 예를 들어, 의사소통의 상대에 따라 격식성을 조정하거나 희곡 번역에서 특정 지역의 방언이나 특정 계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와 관객을 포함한 참여자들 사이의 거리나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135, 137).

베이커(2006: 139)는 번역사나 통역사가 택하는 개별적 전략이 축적될 경우 전달하는 텍스트나 사건 자체를 넘어서 좀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텍스트적 내러티브는 특정 사회에 존재하는 거시 내러티브나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메타 내러티브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번역사와 통역사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자신이 전달하는 내러티브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Baker 2006: 138). 이러한 관점은 뮤지컬의 가사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뮤지컬 작품에서 등장인물이 부르는 넘버는 각 인물의 캐릭터나 심리, 사건의 전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정 인물이 부르는 각각의 넘버는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해당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인물을 둘러싼 사건의 전개 등에 대한 이해도와 정당성이나 설득력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개별 넘버의 가사를 번역할 때도 개별적 전략이 해당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사건 전개 등에 미칠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커가 제시한 프레이밍 전략을 분석 틀로 활용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가사 번역에서 배우의 캐릭터 해석 및 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프레이밍 전략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사건 전개 등이 어떻게 영향

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번역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를 중개하는 작업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프레임의 전환이나 변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번역학,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강경이 2011; 김영신 2005; 김순미 2013; 김진원 2010; 문정경 2009; 이지영 2016; Tenny 1993; Watanabe 1993 등 참고).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신문, 잡지, 도서, 영화 등 매스미디어에 집중되어 왔으며 관객이라는 대중을 대상으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매스미디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공연 예술, 특히 최근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뮤지컬의 번역 현상에 초점을 맞춰 프레이밍 양상을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에는 제작자, 연출자, 출연자, 번역자, 관객 등 다양한 주체가 여러 단계에 걸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물은 제작 방향, 뮤지컬 산업,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감안할 때(홍정민 2016b)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뮤지컬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접근법은 뮤지컬 번역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킬 앤 하이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현지화와 배우의 힘이 한국 시장에서의 흥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라이선스 작품으로 배우에 초점을 맞춰 가사 번역 과정에서 어떠한 프레이밍 전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심리 등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기에 매우 적합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작품 및 넘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1886년 간행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Robert Louis Stevenson)의 괴기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작곡가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이 작사가인 레슬리 브리커스(Leslie Bricusse)와 함께 극을 썼으며 1997년 4월 28일 미국 브로드웨이의 플리머스 극장(Plymouth Theatre)에서 초연되었다(두산백과; 더 뮤지컬).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는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초연은 2001년 1월 7일 막을 내릴 때까지 총 15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냈으며 특히 2001년에는 「SOS 해상 기동대(Baywatch)」, 「전격 Z작전(Night Rider)」 등에 출연한 데이비드 핫셀호프(David Hasselhoff), 헤비 메탈 그룹 스킨 로우(Skid Row)의 보컬 출신 세바스찬 바흐(Sebastian Bach) 등 유명한 스타를 주연으로 캐스팅했음에도 손실을 입었다(New York Times, 2000. 11. 10; Santana 2009: 84-90, 151). 이 작품은 토니상에서 극본, 남우주연, 의상, 조명 등 네 부문의 후보에 올랐을 뿐 수상에는 실패했으며 초연 시작부터 1999년 1월까지 지킬과 하이드를 연기한 로버트 쿠치올리(Robert Cuccioli)는 드라마 데스크상, 비평가협회상 등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지만 토니상을 받지는 못했다(박병성 2015: 102; Santana 2009: 84). 2013년 4월 5일부터 시작된 재공연에 대한 반응은 더욱 좋지 않았다. 연출, 연기, 무대 등 다양한 측면이 혹평을 받았고(NorthJersey.com, 2013. 5. 2). 이에 당초 6월 30일로 예정되었던 폐막일이 5월 12일로 앞당겨지기도 했다(Wikipedia).

반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한국에서 거둔 성과는 사뭇 다르다.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 42개국에서 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연되었는데(더 뮤지컬) 특히 한국에서는 전회 매진 기록을 세운 2004년 초연 이후 2015년 4월까지 총 일곱 차례 재공연되었으며 일곱 번째 재공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중순에는 국내 대극장 뮤지컬(100석 이상)로는 「명성황후」(2009년), 「맘마미아」(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100회 공연을 달성했다(뉴시스, 2015. 2. 10). 2011년 8월 말 막을 내린 다섯 번째 재공연에서는 순수익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오페라의 유령」, 「아이다」 등을 따돌리고 역대 최고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중앙일보, 2011. 8. 30).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이처럼 한국 시장에서 유독 큰 성공을 거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현지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박병성 2015: 104; 최승연 2013: 148; 국민일보, 2015. 2. 10; 스테이지 톡, 2016. 12. 14; 이투데이, 2014. 2. 7; 중앙일보, 2011. 8. 30, 2017. 3. 22). 논 레

플리카 방식으로 음악과 대본에 대한 라이선스만 취득한 뒤 2년 동안 캐릭터, 가사 등을 한국 관객의 취향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공연으로 재탄생시켰던 것이다(중앙일보 2011. 8. 30; 스테이지 톡, 2016. 12. 14; 연합뉴스, 2016. 11. 20). 이처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다른 문화권에서 크게 흥행하지 못한 원작이라도 적극적으로 적절한 현지화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작품의 현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은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번역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도 제공해줄 수 있다.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85년 런던, 학식이 높고 자비심 많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헨리 지킬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인간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선악의 모순된 이중성을 약품으로 분리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지킬은 연구의 성공을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은 귀족으로 구성된 이사회 전원의 반대로 무산된다. 지킬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어터슨은 그를 위로하며 한 클럽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곳에서 일하는 루시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지킬은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준다. 이후 임상 실험 대상을 구하지 못한 지킬은 결국 스스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감행하고 그의 정신은 선과 악으로 분열되면서 점차 악으로만 가득 찬 또 다른 인격 하이드의 지배를 받게 된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지킬은 약혼자인 엠마와 점점 멀어지고 어느 날 상처를 입고 실험실에 찾아 온 루시를 통해 그녀에게 해를 가한 것이 하이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다. 루시는 지킬의 친절한 치료에 감동하고 사랑에 빠지지만 동시에 하이드는 자신의 계획에 반대했던 이사회 위원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연쇄살인마가 되어 간다. 하이드의 힘이 강해지면서 지킬은 점차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루시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런던을 떠나라는 편지를 보낸다. 하지만 루시가 떠나기 전 이미 하이드의 모습을 한 지킬이 찾아와 그녀를 살해한다. 하이드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결국 지킬은 엠마와의 결혼식 날 갑자기 분출된 악의 힘으로 하객을 살해하고 엠마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하지만 엠마는 침착하게 지킬의 인격을 불러내고 지킬은 엠마를 살리기 위해 결국 어터슨의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두산백과; 더 뮤지컬; 오디컴퍼니 홈페이지 「지킬 앤 하이드」 시놉시스; 송혜진

2011: 9-10; 진상우 2013: 9-11).

본 연구가 한국어와 영어 가사 비교를 위해 참고한 자료는 세 번째 한국 재공연 개막 직전인 2006년 6월 21일 발매된 한국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과 2005년 8월 30일 발매된 영어 OST이다.⁵⁾ 또, 비교의 정확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 작품의 한국어와 영어 악보도 참고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독창, 이중창 등 주인공인 지킬이 부르는 모든 넘버로, 영어 OST에서는 총 11곡, 한국어 OST에서는 총 10곡이다(구체적인 넘버 목록은 <표 2> 참고). 지킬이라는 캐릭터가 극을 절대적으로 이끌면서 상당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인 만큼 주연 배우가 부르는 넘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사 번역에 배우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한국 공연의 현지화 양상과 여기에 배우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공연 관련 신문 및 잡지 기사, 논문 등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한 뒤 그러한 현지화 양상과 이에 대한 배우의 영향력이 가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영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신문 및 잡지 기사의 경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초연 개막일 1개월 전인 2004년 6월 24일부터 2017년 4월 16일까지를 검색 기간으로 설정하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키워드로 입력해 총 8,179개를 추출했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앞서 소개한 베이커(2006: 111-39)의 프레이밍 전략을 분석 틀로 활용해 영어 가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프레이밍 전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했다. 다만 시공간적 프레이밍의 경우, 한국 공연의 시공간적 맥락이 브로드웨이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전략을 중심

5) 한국어 OST는 2004년 7월 30일과 2006년 6월 21일, 영어 OST 역시 2005년 8월 30일과 2006년 3월 31일 두 차례씩 발매되었다. 하지만 2006년 한국어 OST와 2005년 영어 OST의 수록곡이 각각 2곡, 11곡씩 많으며 2004년 한국어 OST의 경우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상호 비교 가능한 넘버가 가장 많은 조합을 선택했다. 각 넘버의 녹음에는 브로드웨이와 한국 공연 초연에서 각각 주연을 맡았던 로버트 쿠치올리와 조승우가 참여했다.

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2에서 제시한 설명에 기반해 이들 세 가지 전략의 명칭과 구체적인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번역 과정에서의 프레임링 전략(Baker 2006: 111-3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전략	구체적 방법
선택적 전유	삭제 및 첨가
딱지 붙이기	성격 및 특징 관련 단어, 용어, 구문 사용
참여자 재배치	지시어, 어역, 시공간, 방언, 별칭 등 조정

4. 분석 결과

4.1 문헌 검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한국 현지화 양상과 배우의 영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브로드웨이와 달리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작을 한국의 맥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현지화한 것이 주효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지화 양상이 한국 관객들에게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 작품의 제작사인 오디컴퍼니의 신춘수 대표는 “한국 관객 입맛에 맞는 스펙타클, 호흡, 애잔함 등을 살려냈다”는 점을 현지화의 주안점이자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중앙일보, 2011. 8. 30). 언론 및 평단의 견해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 작품이 드라마를 단순화하고 압축해 극의 전개 속도를 높이면서 드라마의 에너지를 강화했으며 원작에서는 그로테스크한 측면이 부각되었던 하이드 등 인물의 이미지를 좀 더 인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국내 관객들에게 강하게 호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김형중 2014: 247; 중앙일보, 2011. 8. 30). 즉, 현지화는 사건의 극적인 측면과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 애잔함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극적 정서를 극대화함으로써 관객들이 사건에 좀 더 몰입하고 인물에 연민과 동정심을 갖도록 한다. 실제로 한국 대중 예술에서 ‘비애’의 정서는 매우 친숙한 것으로 수많은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들이 원작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러한 ‘비애’의 감정이나 비극적 정조를 전경화함으로써 대중적인 호소력을 갖도록 번역되었다(최승연 2009: 228).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감정이나 정서를 극대화해 전달하는 데 초연과 이후 다섯 차례의 재공연에서 주연을 맡았던 조승우라는 배우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박병성 2015; 윤자형 2009; 차윤미 2014; 최민우 2014; 홍윤희 2005). 조승우는 브로드웨이 공연과는 달리 모성본능을 자극하는 지킬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객석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최승연 2013: 171). 그가 연기하는 지킬은 하이드에게 짓눌려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유약한 인물로 하이드의 정신착란이 가중될수록 관객들에게 연민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작품에 깊이 몰입하도록 한다(171). 이는 특히 여성 관객들 사이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전’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재공연 때마다 트리플 캐스팅, 퀘드러플 캐스팅을 통해 여러 배우가 연기하는 지킬의 이미지를 압도하면서 한국에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해석되는 맥락을 주도했다(171). 좀 더 구체적으로, 조승우는 매우 열정적인 동시에 아직 미숙함이 남아 있는 순수한 청년 같은 모습으로 지킬을 표현한다. 하이드의 경우, 착한 아이의 모습 아래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 어둡고 상처받은 내면,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로 묘사되며 따라서 드러내는 감정도 매우 인간적이다(더 뮤지컬, 2015. 2).

반면, 조승우와 함께 초연 이후 10여 년 동안 지킬 역을 맡아 온 류정환은 클래식한 성악 발성을 토대로 좀 더 어른스럽고 권위 있는 인물로 지킬을 묘사하며 당당하고 안정된 태도로 신사적인 모습을 연기한다. 박은태의 경우 자신의 연구에만 매진하는 외골수 과학자의 전형으로 가장 반골 기질이 강한 아웃사이더로서 지킬을 표현한다. 사실상 그의 관심은 아버지나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종교와 도덕의 구시대적이고 편협한 논리에 맞서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끝내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하고 말았을 때 한 선량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지나친 외고집으로 자멸의 길을 걸은 과학자의 말로를 보는 듯하다(더 뮤지컬, 2015. 2). 이는 조승우가 표현하는 지킬이 다른 배우들에 비해 관객들에게 연민, 안타까움, 동정심, 모성애 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공연의 성공을 이끌었던 현지화 과정에서 강화하고자 했던 측면, 즉 인간적인 면모, 애잔함, 비극적 정서 등과 상통한다.

조승우의 외적인 특성 역시 이러한 캐릭터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두 개의 상반되는 캐릭터를 동시에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한 작품으로,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는 주로 30-40대의 건장한 체격에 중후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주연을 맡아왔다(최민우 2014: 242-43). 반면, 2004년 초연 당시 조승우는 24세로 매우 어렸을 뿐 아니라 신장과 체구도 작아 공연 초반 그가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게 제기되기도 했다(홍윤희 2005: 25).⁶⁾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작품의 흥행을 이끌었는데 그의 여린 듯한 외모가 오히려 연민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선하고 섬세한 얼굴이 하이드로 변신했을 때의 극적 효과를 강화했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최민우 2014: 245-46; 홍윤희 2005: 25).

결국, 브로드웨이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주인공의 인간적인 면모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움, 연민, 동정심은 조승우라는 배우의 캐릭터 해석 및 표현, 외적인 이미지와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고 극대화되면서 한국 관객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브로드웨이에서 한국 공연으로 넘어오면서 조승우라는 배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구축된 이러한 지킬의 캐릭터가 번역된 가사에는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선택적 전유, 딱지 붙이기, 참여자 재조정 등 베이커(2006)의 세 가지 프레이밍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4.2 텍스트 분석: 가사 번역에서의 프레이밍 전략과 배우의 영향

4.2.1 선택적 전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택적 전유는 일련의 삭제 또는 첨가를 통해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정교화하는 프레이밍 전략으로, 텍스트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텍스트, 작가, 언어, 문화 등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의 선택을 통해서도 이뤄진다(Baker 2006: 114). 그런데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음악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가사 텍스트를 삭제하거

6)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 초연에 참여했던 로버트 쿠치올리, 데이비드 핫셀호프, 세바스찬 바하는 각각 183cm, 193cm, 190cm의 장신에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배우들이며, 국내의 경우에도 가장 최근 진행된 재공연(2014. 11. 21~2015. 4. 5)에서 조승우와 함께 지킬 역을 맡은 박은태와 류정환의 신장이 각각 182cm, 170cm대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네이버; Wikipedia) 조승우의 외적 특성은 같은 역할을 맡은 다른 배우들과 상당히 차별됨을 알 수 있다.

나 첨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뮤지컬 맥락에서 선택적 전유는 텍스트 자체의 양적 조절보다 특정 텍스트의 선택 측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 OST의 수록곡을 비교해 지킬이 부르는 넘버 가운데 어떠한 곡이 번역 대상에서 제외되고 첨가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 한국어 OST에서는 영어 OST에 수록된 지킬의 넘버 가운데 1곡이 제외되었으며 해당 넘버의 제목은 <Pursue the Truth>이다.

<표 2> 영어 OST와 한국어 OST에 수록된 지킬의 넘버 목록 비교

	영어 OST	한국어 OST
1막	Lost In The Darkness	그대 향한 길
	Pursue The Truth	* 제외
	I Must Go On	내가 걷는 길
	Take Me As I Am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Now There Is No Choice	선택은 없어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First Transformation	변화
	Your Work--And Nothing More	기도하네
2막	Obsession	미워하긴 힘들죠
	The Way Back	나의 길을 가겠어
	Confrontation	대결

이 넘버는 임상 실험 계획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자 지킬이 친구인 어터슨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곡으로, 예 1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지킬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실이고 자신의 비전이 옳으며 이사회는 임상 실험이 가져다 줄 가능성을 모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 곡은 지킬이 부르는 두 번째 넘버로 병든 아버지를 돌보다 임상 실험에 대한 결심을 굳히는 장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넘버 <Lost in the Darkness> 다음에 배치되면서 아버지의 치료뿐 아니라 진실에 대한 추구도 임상 실험의 중요한 동기임을 관객들에게 극 초반에 소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작품에서 이성적인 과학자로서 지킬의 이미지를 전경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넘버라고 볼 수 있다.

예 1

<p>ST</p> <p>How can I <u>pursue the truth</u>, When they can block each step I take? ...<i>(중략)</i></p> <p>John, I know I'm <u>right!</u> I <u>must let my vision guide me!</u> ...<i>(중략)</i></p> <p>Who are they To judge what I am doing? They know <u>nothing</u> Of the <u>endless possibilities I see!</u> Its ludicrous I'm bound by their decision! ...<i>(중략)</i></p>

하지만 이처럼 진실 추구라는 동기나 이성적인 과학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현지화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와 애잔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된 지킬의 캐릭터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영어 OST에서 선택되어 한국어로 번역된 그 밖의 넘버에서도 진실 또는 답을 찾는 이성적인 과학자로서 지킬의 모습을 전경화하는 영어 표현이 다른 측면을 전경화하거나 한국어 표현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자세한 논의는 4.2.2. 참고). 결국, 한국어 OST는 과학자로서 지킬의 모습이 가장 먼저 전경화되는 넘버 <Pursue the Truth>를 제외하는 선택적 전유를 통해 지킬이라는 캐릭터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측면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연민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후경화된 과학자로서 지킬의 모습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승우보다는 박은태나 류정환이 표현하는 이미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번역 대상 넘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승우라는 배우의 캐릭터 해석 및 표현, 외적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초연 배우로서 조승우의 입지도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판단되나, 한 명의 배우가 주 8회의 공연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브로드웨이와 달리 국내 뮤지컬계에서는 더블 캐스팅이나 트리플 캐스팅이 일반화되어 있어 팬들이 동일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를 비교하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지혜원 2012: 127)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 자체의 상대적 설득력과 소구력 역시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4.2.2. 딱지 붙이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는 텍스트를 대대적으로 삭제하거나 첨가하기가 어려운 만큼 텍스트에 대한 직접 개입은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를 드러내는 단어, 용어, 구문을 사용하는 딱지 붙이기나 의사소통 참여자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참여자 재배치를 통해 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딱지 붙이기 전략과 관련,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인류애와 희생, 억압과 역경 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표현이 선택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예 2는 지킬이 부르는 첫 번째 넘버인 <Lost in the Darkness>의 5-8행으로, ‘당신에게 닿을 수 있다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돌아오는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미의 ST는 “나 당신에게 이 어둠 뚫고 다가서려 하지만 멀어지네”라는 구문으로 번역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지킬의 안타깝고 애절한 감정을 좀 더 배가시키고 있다. 또, ‘어둠 속 길을 잃고’라는 의미의 영어 제목이 한국어로는 ‘그대 향한 길’로 번역됨으로써 지킬의 행위 목적이 아버지에 있다는 점이 좀 더 부각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목이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을 전경화할 수 있는 효과적 프레임링 수단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목의 번역은 관객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킬의 강한 사랑과 실험의 순수한 동기라는 내러티브를 좀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딱지 붙이기 전략은 4.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실에 대한 추구가 임상 실험의 또 다른 동기임을 소개하는 넘버를 제외하는 선택적 전유 전략과 맞물려 이성적인 과학자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지킬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경화함으로써 지킬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예 2

ST	TT
If I could reach you I'd guide you and teach you to walk from the darkness back into the light	나 당신에게 이 어둠 뚫고 다가서려 하지만 멀어지네

예 3은 임상 실험 계획이 이사회 전원의 반대로 무산된 후 지킬이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결심하고 이를 감행하기 직전에 부르는 넘버인 <This is the Moment>의 1-9번째와 32-41번째 마디로, 지킬의 인류애와 희생을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된 사례다.

ST 속 3-6행과 14-15행은 ‘모든 의심과 악을 물리친다. 내가 쏟았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와 ‘지금은 가장 달콤한 순간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개인적 노력을 통한 목표 달성과 성취의 기쁨에 내러티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TT의 4-7행, 16-17행의 경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와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러티브의 초점은 목표 달성과 성취의 기쁨보다는 이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이동하며 이는 인류애라는 그의 순수한 동기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부각된 순수한 동기와 인류애는 희생의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표현과 맞물리면서 비극적 정서를 증폭시킨다. 예 3의 8-14행은 ‘지금 이 순간은 내 마지막 시험의 순간이다. 운명이 손짓했고 차선은 생각하지 않았다. 내려다보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지킬의 목표 달성 의지가 부각되고 있다. 반면, TT는 이를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라는 구문으로 대체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영혼까지 바치겠다는 희생에 내러티브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예 3

ST	TT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day	지금 여기
When I send all my doubts and demons on their way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Every endeavor, I have made - ever Is coming into play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Is here and now - today	여기 바로 오늘
...(중략)	...(중략)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My final test	내 모든 걸
Destiny beckoned	내 육신마저
I never reckoned	내 영혼마저
Second best	다 걸고
I won't look down	던지리라
I must not fall	바치리라
This is the moment	애타게 찾던
The sweetest moment of them all	절실한 소원을 위해

희생의 내러티브는 <The Way Back>의 가사에서 극대화된다. 이 넘버는 하이드의 힘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킬이 루시에게 편지를 보낸 후 굴복하지 않고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부분에 나오는 곡으로, 예 4에서 볼 수 있듯 ST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 처음에 나에게 영감을 주었던 비전을, 나에게 의지를 주었던 희망을. 높은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예전과 같은 광경을 바라보겠다. 세상을 다 뒤져 답을 찾겠다. 절망에서 벗어난 뒤 영원히 성공하겠다’의 의미를 전개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예 3의 ST와 같이 목표 달성과 성공에 대한 의지에 내러티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TT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여도”, “무언

가 잘못 돼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꿈이 부서져도 삶이 끝난대도”, “내 죽어 한 점 흠이 되어도”, “이 목숨 끊어질 그 날까지” 등의 구문을 선택함으로써 목표 달성과 성공에 대한 의지보다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희생의 내러티브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희생의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구문을 사용하는 딱지 붙이기 전략은 지킬의 순수한 동기와 인류애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험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결말과 맞물려 지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비극적 정서를 좀 더 증폭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예 4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 과학자로서 자신의 비전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ST의 표현이 TT에서는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결의의 표현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러한 딱지 붙이기 전략은 4.2.1에서 설명한 선택적 전유 전략과 맞물려 지킬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부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 4

ST	TT
Somehow I have to get Back to the place where my Journey started Find the course I charted When I first departed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여도 가야만 해 나를 찾아야 해 나를 믿어야 해
<u>Somehow I have to hang on</u> <u>To the vision that</u> <u>First inspired me,</u> To the hope that fired me When the world admired me	<u>무언가 잘못 돼</u> <u>모든 걸 잃는다</u> <u>할지라도</u> 꿈이 부서져도 삶이 끝난대도
I'll find a way back to the higher ground And see the view I saw before	내 죽어 한 점 흠이 되어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을
I'll search the world until The answer's found Turn my despair around Forevermore	세상이 내게 던진 속제를 이 목숨 끊어질 그 날까지

번역 과정에서 지킬이 겪는 억압과 역경의 내러티브가 부각되면서 연민과 동정심, 애처로운 감정이 강화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었다. 예 5는 <This is the moment>의 14-19번째 마디로, ST는 ‘지금 이 순간과 소중한 변화를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결국 무언가를 이룩할 것이다’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지킬의 결연한 의지에 내러티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TT는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등의 구문을 통해 ST에는 없던 억압, 역경과 그로부터의 해방으로 내러티브의 초점을 변경했다.

예 5

ST	TT
Give me this moment	참아온 나날
This precious change	힘겹던 날
I'll gather up my past	다 사라져간다
And make some sense at last	연기처럼 멀리

예 6은 딱지 붙이기 전략을 통해 ST에 존재하는 억압과 역경의 내러티브가 TT에서 한층 강화된 경우다. ST는 1)‘내가 그 동안 노력하고 꿈꿔왔던 모든 것과 계획과 절구가 하나가 되는 순간’, 2)‘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빛나는 날’, 3)‘지난 수 년 동안 세상에 혼자 맞서왔으나, 이제 그들에게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성취했음을 증명할 시간이 왔다’의 의미로 “screaming”, “alone”, “to prove them” 등을 통해 고난, 외로움,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내러티브의 초점은 지킬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목표 달성에 맞춰져 있다. 반면, TT는 이를 1)“날 묶어 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2)“남은 건 이제 승리뿐”, 3)“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을 부딪혀 맞설 뿐” 등의 구문으로 번역함으로써 개인적 노력이나 목표 달성보다 어떤 대상으로 인해 발생한 억압, 비난, 고난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

예 6

ST	TT
1) This is the moment When all I've done	1)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All of the dreaming Scheming and screaming become one	날 묶어 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2) This is the day See it sparkle and shine When all I've lived for Becomes mine	2)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3) For all these years I've faced the world alone And now the time has come To prove them I've made it on my own	3)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The Way Back>에서 발췌한 예 7 역시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바람이 산산조각 낸 내 모든 꿈을. 운명으로 부서졌던 중요한 것을 되찾을 것이다. 어떻게든 계속해야 한다. 악이 패배할 때까지. 내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으며 “wind”, “fate”, “evil” 등의 단어를 통해 역경과 고난의 의미가 전달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초점은 앞서 살펴본 여러 예문의 ST에서와 같이 목적 달성 및 성취라는 내러티브에 맞춰져 있다. 반면, TT는 “누군가 비난을 비처럼 퍼부어 댄다 해도, 나를 할궐 듯이, 나를 삼킬 듯이, 막을 순 없어도, 버티다 못해도” 등의 구문을 통해 억압, 역경, 비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내러티브가 좀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킬의 싸움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그의 연약하고 애처로운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예 7

ST	TT
Somehow I have to rebuild All the dreams that the wind have scattered	누군가 비난을 비처럼 퍼부어 댄다 해도
From what the fate has shattered	나를 할궐 듯이

I'll retrieve what mattered	나를 삼킬 듯이
Somehow I've got to go on	미칠 듯 내 안에 사악한
Till the evil has been defeated,	바람이 불어와도
Till my work's completed	막을 순 없어도
I will not be cheated	버티다 못해도

억압과 역경의 내러티브가 과학자로서의 진실 또는 답을 찾겠다는 ST 속 의지의 내러티브를 대체하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모습보다 인간적이고 애처로운 이미지가 좀 더 강화된 사례도 자주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I Must Go On>에서 “I must go on with the work I'm committed to. How can I not, when my theories are true?”(나는 내가 하기로 한 일을 계속 해나가야만 한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이론들이 진실인데)는 “당신에게 이런 말 하는 내 맘이 무겁지만 피할 수가 없네”로, <Obsession>의 “What streak of madness lies inside me? What is the truth my fears conceal?”(내 안의 광기는 무엇인가? 내 두려움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는 “미워하긴 힘들죠, 나니까. 나의 또 다른 나니까”로 번역되면서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을 감당해야만 하는 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부각되었다. 이는 지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서, 특히 여성 관객들에게 모성애를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4.2.3 참여자 재배치

작품의 현지화 과정에서 부각된 지킬의 순수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연약하고 애처로운 이미지는 시공간, 어역, 지시어 등 다양한 규정 수단을 언어적으로 조정해 사건, 등장인물, 독자, 청자 등 ST 내러티브의 참여자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참여자 재배치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예 8은 <This is the Moment>의 마지막 11개 마디로 임상 실험에 대한 지킬의 결연한 의지와 결심이 극대화되는 부분이다. ST의 경우, 1-2행은 ‘지금 아니면 신과 영원히 함께 설 수 없다’라는 의미로 성취를 통해 신의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지킬의 의지를 내포한다. 반면, TT는 이를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로 번역함으로써 지킬이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신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TT는 지시

어를 조정해 지킬 혼자만의 독백을 신과의 대화로 바꾸고 어역을 높이는 등의 참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실험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자신감 있고 야심만만한 과학자로서 ST 속 지킬의 모습을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신에게 용서와 허락을 구하는 겸손하고 연약한 존재로 변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류정환이 표현하는 권위 있고 당당한 신사로서의 지킬이나 박은태가 연기하는 종교와 도덕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외골수 과학자로서의 지킬보다 순수하고 연약하고 애처로운 하나의 인간으로서 조승우 버전의 지킬이 가진 이미지와 좀 더 조용하며 이러한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이 부각될수록 그가 희생을 무릅쓰고 감행한 실험이 실패로 끝날 때 관객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배가된다.

예 8

ST	TT
This day or never I'll sit forever with the gods!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When I look back I will always recall Moment for moment This was the moment The greatest moment of them all	내 마음 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공간을 조정하는 참여자 재배치 역시 지킬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예 2에 대한 설명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지킬의 첫 넘버인 <Lost in the Darkness>에서 ‘어둠 속 길을 잃고’라는 의미의 제목은 ‘그대 향한 길’로 번역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서 있는 곳’이라는 공간이 ‘아버지를 향해 가는 지킬의 길’이라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공간적 전환은 아버지가 병과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킬이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의미를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이 곡이 작품의, 그리고 지킬의 첫 넘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략은 관객들에게 그의 행위 동기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있음을 초반부터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참여자 재배치 전략의 효과는 앞서 논의한 선택적 전유 및 딱지 붙이기의 효과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순수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연약하고 애처로운 지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 결론

연구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현지화를 위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현재 해당 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출연 배우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공연된 라이선스 뮤지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현지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대상으로, 해당 작품의 현지화가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배우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본 뒤 그러한 배우의 영향이 브로드웨이 공연의 영어 가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선택적 전유, 딱지 붙이기, 참여자 재배치 등 베이커(2006)의 세 가지 프레이밍 전략을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문헌 검토 결과, 이 작품의 현지화는 사건의 극적인 측면과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 애잔함 등을 강화함으로써 작품 전반의 비극적 정서와 인물에 연민과 동정심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초연 이후 총 여섯 차례 주연을 맡았던 배우 조승우가 주인공 지킬을 순수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연약하고 애처로운 인물로 표현하고 그의 작은 체구와 선한 얼굴이 그러한 캐릭터를 강화하면서 증폭되고 극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관객, 특히 젊은 여성 관객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지니면서 다른 배우들이 표현하는 이미지를 압도하는 ‘정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 결과, 이러한 지킬의 캐릭터는 한국어로의 가사 번역 과정에서 번역 대상 선택 시 특정 넘버를 제외함으로써 이성적인 과학자로서의 이미지를 후경화하는 선택적 전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인류애와 희생, 억압과 역경 등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딱지 붙이기, 지시어, 어역, 공간 등을 조정해 다른 인물이나 주체와 지킬의 위치 또는 관계를 전환하는 참여자 재배치 등의 프레이밍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조승우라는 영향력 있는 배우의 해석 및 표현, 외적 특성은 관객들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갖는 대표적인 지킬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으며 가사 역시 이러한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뮤지컬 번역에서 배우의 다양한 측면이 직간접적으로 가사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이처럼 배우의 내적, 외적 특성과 가사 번역 양상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안타까움, 연민, 동정심과 비극적 정서 등 제작사가 현지화에서 초점을 두었던 효과가 극대화됐으며 이는 결국 해당 작품이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가사나 대본 번역 과정에서 출연 배우의 견해나 내적, 외적 특성 등 배우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뮤지컬 번역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연 예술만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없이는 뮤지컬 번역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연 예술, 특히 뮤지컬이라는 장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라는 주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번역 양상을 고찰한 드문 시도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레이밍 과정에 대한 고찰을 공연 예술 분야로 확장했다는 데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가 문헌 연구와 텍스트 분석에만 기반해 도출된 만큼 참여 주체 또는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라이선스 작품의 한국 공연에서 동일한 역할로 캐스팅된 여러 배우의 가사나 대사에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각 배우는 가사나 대사 번역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후속 연구로 진행할 경우, 배우와 뮤지컬 가사 및 대사 번역 간 상관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현지화된 라이선스 작품의 역수출 또는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가사 및 대사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 역시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강경이 (2011) 「한중(韓中) 양국 문화 간 프레임 차이를 감안한 번역가의 개입 양상 - 소설 속 비유적 요소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37: 735-58.
- 권수현 (2016. 11. 20) 「“지킬 앤 하이드”로 아시아 겨냥...한국 뮤지컬 새 길 연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17일 검색.
- 김나민, 홍나영, 이문규 (2010) 「뮤지컬 출연배우의 전문성과 인지도가 관람객의 관람의향에 미치는 영향」, 『商品學研究』 28(3): 115-27.
- 김미나 (2015. 2. 10)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000회 공연 돌파」, 『국민일보』, 2017년 1월 15일 검색.
- 김이슬 (2016. 7. 27) 「[뮤지컬 코멘터리] ‘스위니 토드’ 아재 개그의 향연? “손드 하임의 ‘말맛’ 제대로 살린거죠”」, 『헤럴드경제』, 2017년 2월 10일 검색.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65-100.
- 김주애 (2016. 12. 7) 「‘지킬 앤 하이드 월드 투어’, 장점만 모았다...글로벌 시장서 통할까 (종합)」, 『엑스포즈뉴스』, 2017년 1월 15일 검색.
- 김진원 (2010)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뉴스미디어 번역기사의 프레임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중 (2014) 『우리시대 최고의 뮤지컬 22』, 경기: 다음 생각.
- 노승국, 김상용 (2015) 「뮤지컬 더블캐스팅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 연구」, 『문화경제연구』 18(1): 199-211.
- 문정경 (2009) 『번역에 있어서 프레임수용과 문제점』,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현 (2013) 『대중문화 콘텐츠 속 이형 캐릭터의 문화적 함의 연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노트르담 드 파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성 (2015) 『2000년대 라이선스 뮤지컬의 산업화 양상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임대근 (2016)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공연 현황과 특징 분석」, 『인문콘텐츠』 40: 253-69.

- 백새미 (2014) 『뮤지컬에서 출연배우가 뮤지컬 인지도와 티켓구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뮤지컬 마니아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민호 (2017. 3. 22) 「원작 뮤지컬 뛰어넘은 스토리·홍행 ... 리메이크의 마술」, 『중앙일보』, 2017년 1월 15일 검색.
- 송주희 (2015. 1. 22) 「[송주희 기자의 About Stage] 역할 커지는 뮤지컬 번역...말·리듬·감성을 요리하다」, 『서울경제』, 2017년 2월 3일 검색.
- 송해진 (2011) 『선과 악의 상징성을 통해 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인물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스태이지 톡 (2016. 12. 14)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국내 초연에서 월드 투어 프로덕션까지」, 『스태이지 톡』, 2017년 1월 17일 검색.
- 안세영 (2015. 2) 「[문화산책] 조승우 류정한 박은태 캐스트 비교: 배우로 보는 ‘지킬 앤 하이드」, 『더 뮤지컬』, 2017년 1월 16일 검색.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뮤지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오현주, 김영찬 (2014)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의 현실과 개선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2(4): 125-38.
- 윤자형 (2009) 『한국 뮤지컬에서 스타 활용을 통한 대중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꽃들 (2014. 2. 7) 「[연예산업 파워를 찾아서(25) 오디뮤지컬컴퍼니] 한국 상황에 맞게 변용 ‘논레플리카’ 전략 통했다」, 『이투데이』, 2017년 1월 21일 검색.
- 이선정 (2012) 『뮤지컬 ‘판타스틱스’를 통한 브로드웨이작품의 번역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은 (2013)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노랫말 번역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선 (2008. 12. 2) 「사회적 금기와 예술, 무대 위 줄타기: 연극 ‘서안화차’ 뮤지컬 ‘헤드윅’ ‘쓰릴미’ 등 동성애 소재로 흥행몰이」, 『주간한국』 통권 2250호, 2017년 2월 7일 검색.
- 이재훈 (2015. 2. 10)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1년 만에 1000회 공연...대극장 작품 3번째」, 『뉴시스』, 2017년 1월 15일 검색.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심

- 으로, 『번역학연구』 17(5): 201-32.
- 전병준, 윤민정 (2010) 「홍행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뮤지컬 산업의 흥행전략」, 『예술경영연구』 17: 111-39.
- 정정희 (2007) 『뮤지컬 노랫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혜원 (2012)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서울: 이야기쟁이낙타.
- 진상우 (2013)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Jekyll & Hyde>> 공연적 특성에 나타난 주인공의 성격/심리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운미 (2014) 『한국 뮤지컬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팬덤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민우 (2011. 8. 30) 「100억 순익 넘은 ‘지킬 앤 하이드’ 그 ‘신화’ 뒤에 숨은 4가지 코드」, 『중앙일보』, 2017년 1월 15일 검색.
- 최민우 (2014) 『뮤지컬 사회학: 뮤지컬을 보는 새로운 시선』, 서울: 이콘 출판.
- 최수용 (2010) 『스타마케팅이 뮤지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연 (2009) 「번역된 문화와 한국적 디코딩 - 번역 뮤지컬의 수용에 대한 일고찰」, 『한국극예술연구』 29(4): 219-60.
- 최승연 (2013) 「공포의 스펙터클 - 빅토리아 시대를 향한 뮤지컬의 동경 <지킬 앤 하이드>, <스위니 토드>, <잭 더 리퍼>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51: 147-79.
- 홍승연 (2017) 『뮤지컬 자막 번역 연구 : 창작뮤지컬 「명성황후」와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윤희 (2005)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연구 : 수입 뮤지컬을 통해 본 창작 뮤지컬의 미래모색』,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정민 (2016a) 「틀 의미론에 기반한 전문 번역 오류 분석」, 『응용 언어학』 32(1): 203-35.
- 홍정민 (2016b) 「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의 변화와 원인 - 손드하임의 『스위니 토드』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191-241.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ervelli, Joseph (2013) “‘Jekyll and Hyde’ a Disastrously Bad Revival’,

- NorthJersey.com*, 2 May. Available at <http://archive.northjersey.com/arts-and-entertainment/theater/jekyll-and-hyde-a-disastrously-bad-revival-1.165552?page=all>
- Cunningham, David and Barb Browning (2004) 'The Emergence of Worthy Targets: Official Frames and Deviance Narratives within the FBI', *Sociological Forum* 19(3): 347-69.
- Entman, Robert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illmore, Charles J. (1982) 'Frame Semantic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Seoul: Hanshin, 111-37.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Healy, Patrick (2013) 'Musicals Couldn't be Hotter off Broadway (by 7,000 Miles)', *The New York Times*, 7 December.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3/12/08/theater/musicals-couldnt-be-hotter-off-broadway-by-7000-miles.html>
- Healy, Patrick (2013) 'Heartthrobs Rule the Korean Stage: K-Pop Stars Selling Stage Musicals in Korea', *The New York Times*, 26 December.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3/12/29/theater/k-pop-stars-selling-stage-musicals-in-korea.html>
- Kim, Youngshin (2005) 'Application of Frames to the Practice of Translation with Reference to News Transl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6(1): 167-83.
- Kirk, Sung Hee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1): 283-309.
- Lakoff, George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first edition, Vermont: Chelsea Green.
- Lee, Peter (2011) 'Lost in Musical Translation: The Case of "Valjean's Death" in Les Miserabl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2): 285-311.

- Mckinley, Jesse (2000) 'ON STAGE AND OFF; 'Jekyll and Hyde' among Closings', *The New York Times*, 10 November.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00/11/10/movies/on-stage-and-off-jekyll-and-hyde-among-closings.html>
- Munday, Jeremy (2002) 'Systems in Translation: A Systemic Model for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 Theo Hermans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Manchester & New York: St. Jerome, 76-92.
- Santana, Douglas (2009) 'The Box Office Effects of Casting Celebrities as Replacement Actors on Broadway', MA dissertation, California: San Jose State University.
- Tennan, Deborah (1993) 'What's in a Frame? Surface Evidence for Underlying Expectations', in Deborah Tannen (ed)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 Oxford: OUP, 14-56.
- Tymoczko, Maria (1999) *Translation in a Postcolonial Context*, Manchester & New York: St. Jerome.
- Publishing: Manchester UK. Watanabe, Suwako (1993) 'Cultural Differences in Framing: American and Japanese Group Discussions', in Deborah Tannen (ed)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 Oxford: OUP, 176-209.

<인터넷 자료>

- 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Jekyll & Hyde], 2017년 2월 15일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5604&cid=42611&categoryId=42611>
- 두산백과. 지킬 앤 하이드[Jekyll and Hyde], 2017년 2월 15일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5790&cid=40942&categoryId=33113>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490&cid=43667&categoryId=43667>

오디컴퍼니. 「지킬 앤 하이드」 시놉시스, 2017년 2월 15일 검색.
http://www.odmusical.com/show/show3_view.asp?idx=3&category=2&search_type=0&search_word=&page_size=15&page=1
Wikipedia. Jekyll & Hyde (musical).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Jekyll_%26_Hyde_\(musical\)](https://en.wikipedia.org/wiki/Jekyll_%26_Hyde_(musical))

<분석 자료>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한국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2006. 6. 21), 소니뮤직.
Musical 'Jekyll & Hyde' Original Sound Track (2005. 8. 30), 워너뮤직코리아.
뮤지컬 지킬 & 하이드 악보 (1990. 5. 9), 서울: 다라.
Jekyll and Hyde The Musical - Vocal Selections (1997. 8. 1), New York:
Cherry Lane Music.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eading Actors on Musical Lyric
Translation in South Korea
— A Case Study on “Jekyll & Hyde”**

Hong, Jungm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possible influence of leading actors on licensed musical lyric transl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Frank Wildhorn’s “Jekyll & Hyde”, the country’s largest grossing musical. The commercial success of its South Korean production, which contrasts with the \$1.5 million in losses made by the Broadway original production from 1997 to 2001, is largely credited with the localization involving modification of characters and dramatic evolution to better appeal to the target audience, the majority of whom is young female attracted to male actors.

Literature review of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and relevant research shows that the localization focused on evoking more sympathy toward the main characters which strengthened the tragedy of the ending. This was reinforced as the leading actor Cho Seung-woo, who played the title role six times since the South Korean premier in 2004 through 2015 revival, stressed the feebleness, naivety and passion of Jekyll’s character. The actor’s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 which well corresponded to his small frame and delicate face, was enthusiastically received by the audience and then canonized to dwarf the character’s image described by other actors. Text analysis, based on the three key strategies of (re)framing suggested by Baker (2006: 111-39), finds that Jekyll’s image portrayed by Cho was further bolstered in the translated lyrics by means of selective appropriation of numbers, labeling of the character’s

attitudes or situation, and repositioning of the character's relationship or location with oth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various aspects of actors, such as their character interpretation and appearance, can influence on musical lyric translation, and the lyric translation factoring in actor element can help the commercial success of licensed musicals in South Korea.

▶ Key Words: licensed musical, lyric translation, localization, leading actors, Jekyll & Hyde

홍정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drew97@naver.com

관심 분야: 뮤지컬 번역, 뉴스 번역, 제도 번역, 번역 실무 교육

논문투고일: 2017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4일